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日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岡安 壽三郎(OKAYASU Kisaburo)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1. 조직의 개요

1) 협동조합연구소(약칭: '협동총연')

_ "Japan Institute of Co-operative Research (JICR)"

(1) 비영리/협동노동을 추진하는 싱크 탱크

협동조합연구소는 노동자, 시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사업과 생활의 필요로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입니다. 연구소는 일본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 전문연구기관입니다.

(2) 약 500회원(개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소의 5개의 원칙

- 1원칙_인류적 시야에서의 원칙
- 2원칙_번혁의 입장에서의 원칙
- 3원칙_인간발달 중시의 원칙
- 4원칙_실천과 연구의 결합의 원칙
- 5원칙_자립의 원칙

■ 연구소 기관지의 발행 : "협동의 발견"(월간)

2)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 코프)연합회(약칭:일본노협련)

_ "Japan Workers' Co-operative Union (JWCU)"

■ 비영리/협동노동의 전국 연합회

일본노협련은, 노협(워커즈 코프)과 고령자협동조합의 조직적인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협동노동의 보급과 발전, 회원간의 연대와 활동지원 및 지도, 나아가 공적 영역에의 대응, 새로운 노협 설립의 지원, 그리고 FEC 자급권의 확립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회원입니다.

■ 조직 및 사업 규모

- 조합원 : 49,205명(2010,3,31현재). 이 중 취로 조합원:11,867명.
- 회원 사업액 총계 : 270억 370엔.
- 주요 사업 내용 : 고령자 복지, 취업 지원, 육아 지원,
- 건물 종합 관리, 식/농/환경 관련, 협동조합 간의 제휴 등.

■ 독자적인 원칙의 제정

운영 방법에서 다른 단체에는 없는 노협의 특징은, ICA원칙에 더하여, 노협独自の 운영 원칙을 노협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조합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 최신의 '정의, 사명, 원칙'은 2002년에 제정.

3) 협동노동운동의 연혁

■ 1970년대 :

- 각지에서 실업자·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 탄생.
- 니시노미야(관서지방) 기타큐슈(북구주 지방) 등지에서 36단체로
→ 1979년 '전국협의회' 결성.

■ 1980년대 : 노동자가 사업·경영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민.

- 1980년 : ICA 모스크바 대회 '레이로드 보고'.
- 1982년 : 전국협의회 직영의 '직할사업단'(병원의 종합 관리).
- 1983년 : 이탈리아에 조사단.
- 1986년 :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발전시키기로 결정.
- 1987년 : 노협의 모델로서 '센터 사업단' 설립(생협 물류 등).

■ 1990년대 :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규정. 그 사회적 의미를 고민.

- 1992년 : '새로운 7개 원칙' 제정. ICA 가입.
- 1995년 : 미에현에서 고령자 협동조합 탄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생협법인화).

■ 2000년대 : '협동노동의 협동조합' 규정, 협동노동의 확산.

- 2000년 : 정부의 간병보험제도 개시. '지역복지사업소 만들기' 확산.
- 2002년 : 한일 월드 컵. 현재의 '원칙' 제정. 고령협연합회 결성.

■ 2004년 : 지정 관리자 제도에 의한 수탁 및 양육지원사업 확산.

4) 협동노동운동은 조직 원칙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다.(별첨 '조직 원칙의 역사' 참조)

■ 1979년 : '고령자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 결성

→ '사업단 7개 원칙'

- 1986년 : 협의회에서 연합회로, 노협에로의 조직 발전을 결정.

→ '새로운 7개 원칙(개정판)'

- 1992년 : ICA 가입

→ '노동자협동조합 7개 원칙'

- 2000년 : 개호보험 출발, 시민회의 발족.

→2002년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정의, 사명, 지침'

2. 경영과 노동을 둘러싼 제반 문제

1) 전통적 경영론에 대한 이견(objection)

- '고용자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업의 심각한 약점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고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노동조건이 나빠서도 아니고, 임금이 낮아서도 아니며, 노사관계가 나빠서도 아니다.' '약점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과 협동조합과의 사이에 고용자와 종업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에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모든 협동조합은, 틀에 박힌 고용자 이상의 것으로 되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Dr. Laidr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980, IC A)

-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이든 사업체의 경영은 전통적으로 '사람, 물건,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 으로 생각해 왔다. 고용 노동 관계에서는 당연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람'이란 항목에 이견을 제시한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일하는 방식' 이란 명분으로 비정규고용의 확대, 차별의 고정화

- 1995년 당시의 일본경영자연맹(일경련)이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에서 '장기축적능력형,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의 3 그룹의, 비정규고용을 다수로 하는 노동자의 계층화'를 제언.
- 그 10년 전인 1986년 제정된 '노동자 파견법'은, 1999년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2004년에 이르러 제조 업무 (영역)에서도 자유화되었다.
- 삼각계약('삼각고용관계')에 의해, 고용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위장고용, 위장청부가

만연하게 된다. 노동의 질 저하. 빈약한 사회보장. 이미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해결하지 않는 '복잡한 노사관계, 누가 사용자(고용자)인지가 불명확한 노동 실태.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드러난 '다중 하청' '원전 노예'의 실태.

3) 노동문제 ■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책임(SR)의 국제적 접근

Global social compliance programme (GSCP)(국제적인 사회적 준수 프로그램)

(제품 입하 시, 생산 공장 등의 ILO 노동 기준 준수)

reference cord(지침 코드)의 기본 목적은 국제 노동 기준과 decent work (괜찮은 일자리)를 온전히 준수하는 supply chain(공급망)을 통해서, 공정한 노동조건을 달성할 것. 2007년 1월 월마트, 영국의 데스코, 프랑스의 까르푸르, 독일의 메트로에서 시작했다.

■ ISO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증의 기구가 아님)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7 core subjects"(사회적 책무:7개의 핵심 주제)

지침은 '조직은 상호 의존하는 7개의 핵심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규정.

- 조직 통치
- 인권
- 노동 관행
- 환경
- 공정한 사업 관행
- 소비자 과제
-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적 참여

■ "ECOLOGICAL INTELLIGENCE How Knowing the Hidden Impacts of what We Buy Can Change Everything", Daniel Goleman

지구생태계에 대한 정보 :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다니엘 골맨

- 지구권에의 영향 (geosphere impact: 토양,대기,물,기후까지도)
- 생물권에의 영향 (biosphere impact: 우리들의 육체, 다른 동식물의 생체)
-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 등)

3. 새롭게 일하는 방식, 협동노동에 대하여

1) 협동노동과 그 협동조합의 위치

■ '삼위일체'와 '3개의 협동'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이란, 일하는 사람들·시민이, 모두 함께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인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출자, 노동, 관리의 '3위1체'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한다.

(요주의:노동자가 경영자가되는 것이 아니다.)

-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과의 협동이라고 하는 '3개의 협동'

2) 협동노동의 핵심: 사업소■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 과 '자그마한 전체'

■ '3개의 협동'은,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주축으로 실현한다.

→ "Conducive Products", "Co-Production" ('좋은 생산품', '협동생산)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 사업에 있어서 '고객만족형'이란 평가기준을 뛰어넘는, '이용자와 함께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자세와 입장.

기본철학 : '노동자는성장한다'라는신념

→ '새로운 Public(공공)' : 시민 주체의 새로운 공공 개념 건설에로의 도전

→ '자그마한 전체': '사업으로부터 지역을 볼 것인가?' '지역에서부터 사업을 볼 것인가?'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연대·네트워크로 인하여, 그 사업소는 그 지역에서 작지만은 전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 회사와 NPO 그리고 협동노동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 회사나 NPO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리더(임원)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협동노동은, 출자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직원)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

○ 이 구조가 '3개의 협동'을 촉진한다.

3) 협동노동·' 3개의 협동' 의 충격

■ 장애인 취로와 취로 지원

■ 장애인도 출자하고, 취로조합원이 된다(책임을 지게 한다)는 데에 부모의 감동.

■ '콩 나무'의 경우 : 양호학교 헬퍼

강좌(생도, 부모, 교사) → 계속 취로 이행 지원 사업소 사업

청년층 자립원 : 지역 주민의 참가, 연국 발표회, 유채꽃 프로젝트

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

- 지정관리(위탁)에서의 이용자의 참가
-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 '공공 시설'의 위상, '주체 창출과 마을만들기'의 거점으로
- ex1. 아동관 : 놀이터인가? 양육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마을재건)'의 거점인가?
- '느낌을 소중히 살려 애길 나눈다'(예: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아이들)
- ex2. 노인복지관 : 가라오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을 만드는 힘이 되게 한다.
- '지원받는 존재에서, 지원하는 존재로'
- 보족 : 이탈리아 영화 'Si può fare'의 충격
2008년 이탈리아에서 히트치고 주목된 작품으로, 정신장애자들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주선하여 성공하고, 인생을 되찾아 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한 조직은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다.

4. 다양한 협동조합의 존재야말로 힘의 원천(복합 재해 부흥 때에도)

1)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의 집합체' (레이로드 보고)는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ex.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 협동조합 간 연대는, 사업 거래로서는 '실현'하고 있지만,
- 거친 표현으로 말한다면, 레이로드의 제기는, UN에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로 시작하는 일련의 UN 결의

2)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IYC)' 로 설정한 의미

- UN은 협동조합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 1992년(UN의 '세계 협동조합의 날'설정의 해) 이후 거의 2년 단위로 UN 총회 결의에서 '협동조합의 진흥'이 제기되고 있다.
- 1994년 이후의 UN 결의는 일관하여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⁷⁾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선주민 등 모든 사람들의 빠짐없는 온전한 참가를 촉진하는 조직이란 것'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다.
- 2002년에는 세계체제의 변화(소련 등의 붕괴, 글로벌리즘) 이후를 꿰뚫어 보고, ILO 총회에서 '협동조합 진흥 권고'를 채택했다. 그 토의에서의 키 워드는, informal economy(비공식 경제)와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등으로 대부분은 일본의 상황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던' 빈곤 문제, informal labour(비공식 노동)

7) 역자 각주 : まちづくり의 번역어인데, 특히 여기서는 '마을 재건' '도시 재건'의 뉘앙스에 가까운 것 같다.

, working poor(워킹 푸어) 등등의 인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OECD보고, 리먼 쇼크 이후)

- A/RES/64/113으로 UN총회에서 체결(2009년 12월 18일)
 - 각 나라와 정부에 대해, 협동조합의 진흥, 사회공헌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요청.
 - 정부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검토해 줄 것을.
 - 사회적 기업과 동질의 활동의 장을 보장할 것을.
 - 그 외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의 요청을 열거하고 있다.
- ICA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적 기준 : 최종판'의 승인
 - 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은 ICA이사회에 제출되어, 맨체스터에서의 2012년 올해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3) 일본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한 검토·연구(연구소의 도전)

- 자연 재생 에너지 개발, 그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정부 환경성 위탁 연구 사업
 - 소규모 수력발전 등
- 피해지역인 동북지방의 부흥·재생과 새로운 일본사회의 창조
 - '林(산림)·農(농업)·海(바다)' 프로젝트
 - 후쿠시마→산지 소비자 연대,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 재생 에너지 사업 등
- '식·농업·환경'사업, '제6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 미곡 생산, 쌀가루 빵, 유채 프로젝트
 -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데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 사회적 기업, 특히 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에서의 협동조합의 우위성
 - 청년층 지원,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생활·취로 지원, 장애인 취로 지원

4) '수직형 협동조합'의 극복이 지역과 일본을 바꾼다.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의 다양한 기획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각 단위 사업체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 첫째 계기로서는, 각계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모든 협동조합의 결집으로 IYC(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전국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에 있다.

둘째 계기로서는, 대지진 재난, 거대 쓰나미, 원전 피해 등 거대한 복합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은, 각각의 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는 역량이 충분히 받

뒤되지 않는다. 역으로 타종 협동조합이 협력했을 때, 예를 들면 '협동조합 부흥회의'와 같은 활동에서(만이),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셋째 계기로, 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세상에 '보이게끔 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다. 예를 들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고용문제, 원자력 에너지 문제 등,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국가정책에, 협동조합으로서의 통일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 협동조합은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지역과 지방자치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협동조합은 현실의 정치와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짊어지는 협동조합이다.

【요약】

- (1) 노협(워커즈 코프)에는, 주체면에서 독자의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 타율적 룰이 아니라, 자립적 룰에 의한 지속성의 담보
 -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ICA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기준'이 중요

- (2) 지역과 연대한 '3위1체', '3개의 협동'의 실천에 의해, 워커즈 코프(노협)에 사회적·지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 Multi-Stakeholde 형 (다수의 이해당사자 모델) 협동조합(다원적 협동조합원 제도의 채용으로)

- (3)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존재는 장애인·실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필수이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 WISE(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 등

- (4)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다. 기타

- (5)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고, 대안 이어야만 한다.